

사랑 담긴 음식 드시고 쾌차하세요!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 국립마산병원서 음식 공양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 회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마산병원 결핵환자들에게 음식을 배품고 있다.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음식이니 많이 드시고 어서 나아사 집에 가세요!”

5월 14일 국립마산병원 별관1 시골벽적 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결핵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모여 치료 받고 있는 별관 앞마당에서 잔치를 연 사람들은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회장 장일선) 봉사자들이다.

벌써 15년째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이곳을 찾고 있는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곳에서 생활하는 250명의 환자 모두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장일선 회장을 비롯한 추영자, 김화순, 오수봉, 양수환씨 등 회원들은 늦은 밤까지 준비한 김밥, 돼지고기, 토마토, 음료수 등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며 패용을 비는 덕담을

결핵 중증 환자들 250명에게 음식·덕담 나누며 ‘동고동락’ 15년째 무연고환자 가족 역할

잊지 않고 건넨다.

특히 이날은 음식 외에도 국립마산병원 별관에서 생활하는 여자 환자들을 위해 일일이 개별 포장한 여성용 양말100켤레와 250개의 빵을 준비했다. 환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으로 소문이 자자한 빵은 빵집을 운영하는 윤성우 사장의 특별 후원품이다.

매년 빵을 보시하는 윤 사장은 병이 위중한 환자들에게 어찌면 생애 마지막으로 먹는

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당일 새벽에 구워내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크기는 점점 커지고 맛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날도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의 음식은 금방 떨어졌다. 병을 잊은 채 환한 웃음을 되찾는 손님이 마냥 행복하다.

국립마산병원 전혜자 간호사와 국립마산병원 불자회 회장 이만자 회장은 “1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연고자 없으신 분들의 가족이 돼 주시고, 종료를 기리지 않고 후원금도 주니 너무 고맙고 이분들을 기다리는 환자들 많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5년 세월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자매 결연을 맺어왔던 환자들 중엔 끝내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결핵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젊은 중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때는 봉사를 하면서도 힘든 마음이 컸다.

그러나 아침부터 목욕 하고 기다리는 환자의 웃음을 대할 때, 목공예품을 만들어 선물로 건넬 때, 또 완쾌돼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볼 때는 그간의 고통을 맘껏 잊어 버린다.

인도 결핵환자 살리기 운동과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도 함께 펼치고 있는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108명의 인도 결핵환자를 살려냈다. 인도 결핵환자 살리기 운동은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자매결연한 환자들에게 운동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병실을 나오면 장일선 회장은 “별관 환자들에게만 음식 대접했다니 마음에 걸려서 다음달에는 본관으로 출동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월드컵 등 주제로 경연 동원, 연꽃문화제 개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동원이 주최하는 제22회 연꽃문화제가 14일 범어사 탑전에서 봉행됐다.

이번 연꽃 문화제는 범어사, 여여선원, 금화사 어린이회를 비롯해 10여개 어린이회에서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월드컵, 스승, 미소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두 부분으로 나눠 경연대회를 치렀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기, 글짓기를 끝내고 탑전에 마련된 놀이마당에서 율놀이, 줄넘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장기자랑에 참가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은아 기자

대불청 전진대회 개최

6월 10일 전국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전국 임원들이 부산에서 미리 뭉쳤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주최로 5월 13-14일 부산 기장에서 열린 전국임원전진대회에는 전국 14개 지구 중 12개 지구의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전국 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전진대회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총재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추대했으며 지도법사로서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 범어사 연수국장 혜수 스님,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 8명을 추대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봉사하며 배우니 더욱 실감 나”

부산 환희불교대학 제1기 카운슬링 과정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 간단한 듯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5월 17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 원통보전은 그 ‘이해와 소통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동안 호스피스 전문 교육으로 한층 전문화된 봉사자들 양성해온 환희불교복지대학(회장 지현)이 제1기 카운슬링 과정을 개설하면서 호스피스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50여명이 이 과정에 등록했다.

5월 24일 졸업식을 앞두고 있지만 수강생들은 3개월간 첫수업일과 똑같이 뜨겁다.

사소함을 듣는다.

“그냥 카운슬링 강의가 듣는 것 보다 봉사를 하면서 배우니까 실감이 더 나죠.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카운슬링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게 되니까 더 효과적이예요.” (신미라·49)

“내 성향대로 환자를 대하는 것을 반성하게 돼요. 카운슬링을 배운 후로는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윤미선·52)

환희불교복지대학 학생 지현 스님은 “누구나 바라는 행복, 부처님 법안에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는 방법론이 때론 필요하기에 행복을 가꾸기 위한 다



카운슬링 교육을 받고 있는 봉사 봉사자들.

각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상담 교육을 확대해 호스피스 봉사자뿐 아니라 장애인, 결혼을 앞둔 이들,

호스피스 전문교육 이수 봉사자 대상 수업 현장 경험 풍부, 고민 해결 창구 역할 특출

로 진행된 카운슬링 과정에서는 박경일 동국대 교수, 권경희 상담심리전문가, 이영순 춘해대학 복지상담학과 학과장 등 전문 강사진에 의해 호스피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카운슬링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이해 및 상담교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 모두가 동인병원, 부산의료원 등에서 환자와 부대끼며 봉사활동을 해온 봉사자들이다 보니 카운슬링 과정은 봉사자들의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초보 봉사자들은 낯선 환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서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봉사에 익숙해진 이들은 환자들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다 원활한 의

학부모와 자녀 등이 함께 듣는 상담 과정 개설도 준비 중이다. 특히 봉사와 복지에 대한 개괄적인 기본인식 이해를 돕는 교육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희불교복지대학은 6월 7-8일 양일간 불교상담개발원 주최로 관음사 자인당에서 특강을 연다. 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실시되는 이 특강은 부산시내 봉사자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203-9436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선·교 함께 배우며 신심 다져요”

여여선원 선불교대학원 개설



선(禪)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신심과 수행의 체계를 갖춘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선불교대학원이 개강했다.

부산 여여선원(주지 정어)은 간화선 대중

화와 대승불교의 이해 및 체계적인 신도 교육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선교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5월 17일(사진) 제1기 선불교대학원 입학식을 가졌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운영되는 선불교대학원은 부산불교대학 여여선원 7층 선방에서 주간반은 매주 수요일에 야간반은 매주 화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

1년 과정으로 정어 스님의 육조단경·선실참·선문활요, 원순 스님의 대승기신론, 상현 스님의 돈오입도요론, 정암 스님의 유마경·선종사 등과 율행정진 등을 통해 선사상의 정립과 선 수행 실참을 겸비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051)853-5486 천미희 기자

“나누는 세상이 곧 부처님 뜻 잇는 것”

부산경남 포교전진대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고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주관하는 부산·경남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전진 법회가 5월 14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라며 “특기력자, 자기인식자가 돼야 진정한 자비실현이 가능하고 부처님 법이 법답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나만 알고 나만 수행하는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자기수행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잇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포교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은아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재대한불교진흥원(이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와 문화

2006 0506

봉축화보 | 불기 2550(2006)년 부처님 오신 날
성진 스님의 산사의 풍경소리 |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다
고산 스님의 지상법문 |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법회 "행복의 종자를 심어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2006 청정운동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보현 보살 10대 행원 해설 - "보현행원 실천하여 우리가 부처임을 깨닫자"
특집 | 마음 치료, 이제는 문화로 한다 - 문화예술과 대안치료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치료하는 이른바, 대안치료의 세계를 알아보다. 문화 자유요법에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마음 치료란 무엇인가
· 미술치료 - 미술은 마음의 표현이다
· 음악치료 - 한방음악치료의 활용
· 무용치료 - 춤과 명상을 융합한 몸 깨어나기
· 서구에서 심리치료를 응용되고 있는 불교수행법
종법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선(禪)의 실질적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②
지상종계 |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부처님의 호흡관 수행법 ②
열린불교, 열린경연 | 신개념의 도심 총림(叢林), 불교다운 건립하는 영남불교대학
한호를 쉬고 떠나는 여행 | 지리산 칠백고지 고운동 이상적 씨 가족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Waking The Cobra'
문화기획 | 소설가 김홍욱이 쓰는 바이칼을 시원으로 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교편화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하버드대학 임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미국 백인불교의 양면성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사찰요리법으로 만드는 소풍 도시락
건강세이 | 당신의 허리는 튼튼한가?
2006년 여름(6월~8월) 주요 사찰 템플 스테이 일정표
역불시대 수행열전 | 금강산에서 신통(神通)을 드날린 석산 대사의 후예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혼침의 노예, 봄날 오후가 나타내지는 진자 이유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태미여행 | 서울의 석비(石碑)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